

혁명가의 한생은 신념으로 빛난다

참된 인간의 정로이며 혁명가의 가치와 운명을 좌우하는 생명선인 신념, 신념으로 하는것이 혁명이며 신념으로 빛나는것이 혁명가의 인생이다.

신념은 준엄한 시련속에서만 검증되지 않는다.

혁명이란 총성세, 경제건설대진군을 힘차게 밀러나가야 하는 오늘날 위대한 당의 품에서 성장한 우리 혁명전사들의 심장은 그 어느때보다도 신념으로 불타야 하며 자기의 혁명적신념을 자그마한 금이라도 가지지 않았거든 늘 체제질하면서 가슴속의 더운 피를 끓여야 한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사탕따개 살아가기 위해서도 신념이 있어야 하고 혁명의 승리를 위해서도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상은 천리만산이며 사람이 다 살아가는 방식도 천갈대만갈대이다.

하지만 불멸하는 대양과도 같이 어느때, 어느 순간이나 혁명전사들의 앞길을 밝히는 진리가 있다.

사람은 천번을 단 천번도 혁명일에 다친 명세를 번치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혁명적신념이 확고하고 의지가 굳세면 그 어떤 강자 못함 난관과 시련이 없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것과도 같은 기적을 낼수 있다는것이 위대한 영도자의 품에 운명의 파장을 일으키고 무수한 희생을내놓아 준것을 보아도 혁명전사들의 신념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혁명적신념을 독수리처럼 간직하고 순간이라도 견줄수 없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한길은 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전사들의 활달하고 결연성이 있고 시련을 뚫고 최후승리의 길은 앞당겨져 있는 것은 곧바로 깨어 있다.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를 앞둔 이태년 4월 어느날이었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책동을 짓부시고 혁명의 최후

승리를 앞당김에 대한 커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기회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념문제를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우리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 주체혁명의 길만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우리 인민에게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길이다. 우리는 노래 《영원히 한길은 가리라》를 높이 부르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의 한 길로 계속 역세게 걸어가야 한다. 주체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자면 신념이 강해야 한다. ...

주체혁명의 길은 혁명위업의 승리와 미래를 굳게 믿는 신념의 강자들만이 걸어가갈 수 있다.

혁명의 길은 하루이틀 가야 할 길이나 순탄한 길도 아니다. 이 길에는 시련과 난관도 많고 예견되지 않았던 가지들뿐이 가로놓일수도 있다. 신념이 확고하지 못한 사람은 혁명일에 시련과 난관이 조성될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막아사로 굴러떨어지게 된다. 신념의 강자만이 최후의 승리가자 필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날 우리 혁명전사들의 가슴에 더욱 엄격으로 새우신 신념의 기둥이 있었다.

북쪽에서도,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금과 같은 불변성, 바로 여기에 혁명전사의 진가가 있고 생명이 있다.

우리 혁명의 전세대가 지녔던 불굴의 신념을 이어받아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며 그 길에서 한치의 탈선과 주저도 모르는 결연한 투사, 당의 현명한 영도자 있고 강위력한 국방력과 불굴의 일심단결이 있기에 최후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 라는 억류의 신념을 지니고 주체 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해나가는 참다운 혁명가.

경애하는 우리 시대는 이런 신념의 강자들을 부르셨고있다. 손건을 살 아도 경애 하는

최고영도자동지를 위하여, 주체혁명 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이제는 우리 혁명일에 기강한 사변이 걸쳐지는 오늘날 우리 혁명전사들의 심장에 마음의 기둥으로 더 높이 세워야 할 신념이다.

우리에게는 최세의 탁월한 정치가로 만민이 높이 부르며 찬송하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고 위대한 당의 현명한 영도자가 있으며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위대한 인민이 있기에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굳은 믿음, 바로 이것이 신념의 강자가 되는 선결조건이다.

자기 영도자에 대한 철철같은 믿음, 자기 당의 위대성에 대한 신념, 자기 인민, 자기자신에 대한 확신, 이는 곧 힘이고 열정이고 혁명적력량의 원천이다.

충정심을 고이는 초석은 신념이다.

혁명적신념은 자기 영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르는 마음에서 그 사상적원천을 두는것이다.

충정심을 신념으로 간직하지 못하면 혁명에 충실하고있어도 충실할수 없으며 당과 영도자를 정직사상적으로, 목적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할수 없다.

충정심이 혁명적신념으로부터 우리나오면 진실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임시적인 흥분으로부터 나오면 거짓이 된다. 이것은 생활의 법칙이다.

평민한 나날이나 준엄한 나날에 나 언제나 영도자에게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영도자와 운명을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확고부동한 신념, 언제나 변함없이 영도자의 사상과 의지대로만 움직여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무비의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는 확고한 지조와 절결.

여기에 우리 혁명전사들의 신념의 높이가 있으며 이런 신념을 체질화하여야 당과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서슴없이 바칠수 있다.

이런 신념을 만장악한 혁명전사는 일상생활에서 사심이 없고 공명

을 모으며 난관앞에서 동요하거나 추호도 대세와 주세에 따라 처신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 혁명전사들의 가슴을 더욱 끓여내지게 하는 신념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억척불변의 믿음의 마음이며 원수님께 모든것을 의탁하고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흔들림없는 절결이고 헌신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우리 혁명전사들의 신념은 앞에서 한마음, 뒤에서 한마음, 바로 누워도 한마음, 돌아누워도 한마음이다.

혁명적신념은 자기 당의 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려는 투철한 맹세와 결합된 승고한 마음이다.

자기 당의 위대성에 대한 신념, 자기 당의 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신, 이는 우리 당의 전파적선전투쟁을 위한 총공세의 주축에 선 우리 혁명전사들이 간직하여야 할 신념이다.

라도제국주의동맹결성 90돌을 며칠 앞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시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심장을 뚫고 울리게 한다.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가고있는 오늘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그 승리의 원천성에 대하여 깊이 인식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대한 사상이 있고 위대한 당이 있으며 위대한 인민이 있는 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과학성이 승리의 원천성이자 혁명의 당을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로 과학이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깊이 확신한 사람만이 그 어떤 시련과 방황속에서도 통용을 잃지 않고 모르고 오직 혁명의 승리를 믿고 그 길로만 뚫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길은 끝까지 걸어야 하는 커다란 가르치심이었다.

그날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배어 새기며 우리 혁명전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 혁명위

업은 반드시 승리하며 우리의 오늘 행복한 생활도, 내일의 희망도 담보된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다시금 사무치게 길잡는다.

기강한 혁명실현은 신념을 검증하는 엄숙한 마당이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혁명실현은 당의 로선과 방침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이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혁명실현은 당의 로선과 방침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이다.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하고 우리 인민의 자주적위상과 행복을 꽃피워나가기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투쟁이다.

순결한 양심과 의리, 헌신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대진군에서 자기 맡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오늘날 신념의 인간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난관과 부닥친다고 하여 동요하거나 형식적이고, 요령주의를 부리는것은 결국 적과 싸우는 격전장에서 겁을 먹고 동요하며 제살공미를 하는것과 다를바 없다.

혁명가들의 한생은 붉은기를 휘둘러가는 한생으로 되어야 한다. ...

혁명의 비바람을 헤쳐 가야 할 길 몇만리나 스승의문 기마아래 다진 그 명예 더욱더 화려해 ...

우리 혁명의 승리와 투쟁의 기지근 불은기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신념의 상징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념의 상징이다.

시대의 벽한 승정인양 닮아나 담이나 커찌는 우리의 붉은기,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념의 상징인 붉은기가 한생의 심장에 당을 따라 불타고 가고갈 신념의 마름을 더 해주고있다.

당의 부름이러면 산악간이 일떠서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위훈을 창조하는 수백만 당원들과 영웅적전진군이 있기에 우리 혁명은 그 어떤 방황도 길잃어 끊임없는 전진기를 열어나갈것이며 백사의 그 길에서 주체조선은 위대한 백전백승을 뚫아내며 수놓아갈것이다.

본사기자 황 순

시련의 나날에 더 깊이 새겨주신 철의 의지

고귀한 사상정신적 양식

고년의 행군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인 주제 85(1996)년 1월 어느날이었다.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국주의의 포위속에서 단독으로 사회주의를 지켜가자니 시련도 많고 고난도 많다고,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혁명의 길을 포기할수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해쳐가시는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고년의 행군길, 그 눈물겨운 자욱자욱이 밝혀와 일군들은 걱정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우렁우렁하신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이다

이제해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시며 경계함에 영도의 자욱을 남기시고 편이여 밀려들어온 북방의 어느 한 지방으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실 때였다.

원래부터 몹시 추운 그 지방의 겨울날씨는 그해에 들어서면서 예년보다 더 얼었다. 가슴을 조이면서 눈보라를 헤쳐가는 일군들의 등발에서는 서도모르게 땀이 흘러내리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

송성이 장내에 뜨겁게 울렸다.

모든 일군들이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다보면 용감하게 진전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혁명승리에 대한 철칙의 신념과 주체의 인생관, 그 어떤 험난경로도 웃으며 넘을 수 있는 배짱을 단겨주시는 뜻깊은 순간이었다.

정령 그이의 가르치심은 시련과 난관을 뚫기 위한 돌격전에 나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어떤 각오와 의지로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심장깊이 새겨준 더없이 고귀한 사상정신적양식이었다.

혁명이자 신념

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는데 대한 신념을 잃지 않고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투쟁하여온것은 정말 역사에 길이 빛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하시면서 혁명은 말이나 언설로 하는것이 아니라 신념으로 한다고, 혁명이자 신념이라고 신념이 자 혁명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신념, 원만인민의 신념을 확신하고 필승을 선언하신것이였다.

그렇다. 혁명적신념이 없는 준엄한 혁명의 길에서 시련을 이겨낼수 없으며 승리할수 없다.

천리만산이 혁명승리에 대한 믿음의 신념을 생명으로 간직하고 우리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선전투쟁에 한사발같이 떨쳐나설 때 최후승리의 날은 더욱 앞당겨질것이다.

본사기자 강 원 남

꺼지지 않는 《해불》

청년중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영도의 진기간 내세우신 사상이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관하게 견지하시는 혁명의 전략적대선이다.

우리 청년들을 나라의 꽃으로, 시대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굳게 믿고 내세우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앞장에서 힘차게 달려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은 그이의 숭고한 의지의 발현인 친절에도 소중히 당겨져있다.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은 나라에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기풍이 차분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제 102(2013)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남자축구를경기장을 관람하시기 위해 헌지에 나오시기를 명하시였다.

관람차들은 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해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다할없는 호모의 마음담아 축출같은 《안대!》 환호성을 퍼뜨렸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

위원회는 책임일군을 동가까이 부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동맹체육관에 축구종목이 있는 곳으로 옮기시였다.

축구종목이 없다는것을 아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시운한 안색을 지으시며 축구는 체육에서 상징적종목이라고, 청년동맹에서 축구를 하면 활활할 수 있을것이라고 하시였다.

책임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대로 청년동맹체육관에서도 축구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청년동맹체육관에 새로 조직하는 축구팀의 이름을 《해불》이라고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일군은 크나큰 걱정에 휩싸여 감사의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너무나 감격하여 웃기시는 걱정을 금치 못하시고있는 그에게 자신께서 인차《해불》팀장을 맡아보겠다고, 청년동맹에서 축구를 한번 본다면 분명히 해보고 싶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에 고무된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짧은 기간에 해불축구팀을 조직하고 훈련

2013. 7. 24

선수들과 감독들은 물론 청년동맹일군들모두가 목에이 눈물을 흘리었다.

꺼지지 않는 《해불》!

청년 경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도록 사랑하시고 내세우신 우리 청년들이 체육은 모든것을 지니시며 축구는 체육에서 상징적종목이라는 크나큰 가르치심을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기대가 깰수 없었다.

몇칠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 조직원 해불팀과 4. 25일시대의 남자축구를경기장을 보아주시였다.

정경을마비한 맨 아기가 주저않을새라 넘겨지는 다신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해불팀 선수들에게

코나만 담뱃과 태평양을 안겨주시고 태평양에서 활을 넣는 빛진 장면이 펼쳐질 때에는 북새 기계하시며 태평양 선수들이 경기를 잘한다고 치하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이러한 경조하였지만 당의 부름에 화답하는 청년들의 기세가 높아야 하는 나라가 불굴하고 우리 혁명이 더욱 힘차게 전진할수 있다고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치는 우리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 당의 믿음직한 전진투사로 키워는 원동력이다.

《해불》!

우리 나라에서는 해불이 청년들을 상징한다고 하시며 우리 청년들이 최후승리의 패업을 앞당겨주기 위해 언제나 끝까지, 당을 따라 힘차게 앞으로만 달려나갈것을 바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에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있다.

당의 청년중시사상을 심장깊이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우리 청년들은 꺼짐없는 불의 불꽃, 투쟁의 해불이 되어 최후승리의 불꽃을 힘차게 퍼뜨려나갈것이다.

본사기자 김 준 현

어버이사람은 동해기술에도

인민의 행복을 위한 일에서는 어떤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였다.

우리 장군님의 이런 숭고한 뜻에 미안하며 이 땅에 초안인민사회의 기념비적장소물들은 정령 그 어머니가, 참모없이 비범한 금어만의 갈발을 밀어내고 일떠서 그 생활력을 과시하고있는 평민성제업소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이야기가 감동깊이 새겨져있다.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이 태평하면 하늘의 별도 따고 불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신 위대한 사상이니 슬개한 뜻이고 의지입니다.》

하늘이 슬개 개인 가을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민성제업소를 찾으신다.

두손을 허리에 얹고서 태평의 경의 바다와 섬들, 넓은 소금밭지구를 이윽도록 굽어보시는 그의 인왕에는 한껏 기쁨의 미소가 어려어 있었다.

금수 밭은 소금밭도로과로로 굽고있어 펼쳐진 소금밭들과 푸른섬, 양수 배수지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함경남도에서 정밀 문임을 하였고 하시면서 평민성제업소는 우리 인민이 건신불망의 의지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는 과정에 이룩한 또 하나의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정으로 가슴떨어치는 일군들의 눈빛에는 뜻 깊은 추억이 새겨져있었다.

소금밭건설문제에 임해서 애왔을 때 많은 일군들은 선뜻 용단을 내리지 못했었다.

모든것이 부족하던 시기에서 방대한 공사를 밀고나간다는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기때문이었다.

바로 이리할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으시고 전적으로 지지해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문제를 인민들에게 대한 편견과 예도모 보시였다. 하기에 오빠전부리 동해의 불로 소금을 생산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들을 모색하여오신 그이였었다.

인민을 위해서는 아무리 조건이

불리하다고 해도 무조건 실행해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철칙같은 의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품소 소금밭 건설자가 되시며 이 사업을 힘있게 밀어주시였다.

소금밭건설의 전적방향과 당도도 하나하나 밝혀주시고 결연한 문제를 풀어주시며 일군들이 공사과정에서 애로에 부딪힐 때마다 그들의 심정마다에 불굴의 정신력과 신도 때울줄 태평도 안겨주시 위대한 장군님.

인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는 중요한 사업이었으므로 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침지도 하우 미루시며 공사전반을 일일이 보살펴 주시였다.

중으로 공사의 첫발을 박던 그 순간부터 소금밭건설과 불우에게 이르거시기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과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공정이란 없었다.

이렇게 하여 동해지역에서의 소금밭건설이 성과적으로 결속되게 되었다.

평민성제업소, 정령 그것은 인민을 위해서라면 줄우에도 꽃을 피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이 날은 고귀한 정령제이다.

본사기자 김 일 권



혁명선열들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가슴깊이 새겨준다. -세명광산에서- 본사기자 특필

위대성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회령시 혁명적당 당조직에서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명도업적들을 통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목양에는 회령시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거룩한 발자취가 뜨겁게 여겨진다.

당조직에서는 당원들과 총영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들의 명도사적내용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주고 교양사업을 착실하게 진행하고있다.

강연회와 학습회 등 여러 가지 형을 통하여 불멸의 명도업적들을 통한 교양사업이 실속있게 진행되고있다.

당조직에서는 절세위인들의 명도의 자욱이 어떤 현지지도로정에 대한 참관사업과 학습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모든 당원들이 참여하는 크나큰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축신생생애에서 헌신을 일으켜나가고자 하고있다.

로동동원 리 현 수

명도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국가과학원 당위원회에서는 과학자분류에 걸세위인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심도있게 진행하고있다. 그들이 높은 과학연구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 조직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와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을 당의 강령으로 풀이하고 향기의 알보다 더없이 깊이 관철하여야 하며 모든 사업에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는데 지향시키고 북돋아주어야 합니다.》

지난 1월 어느날이었다.

밤은 소리가 없이 깊어졌지만 국가과학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상을 이윽도록 떠날수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

국가과학원 당위원회 책임일군이었다.

올해 정초 대소환의 추위로 마다하지 않고서도 국가과학원을 찾으신 우리 조국과학원 연구원들을 맞이하여 맞이할 준비를 마치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영도자동지께서 과학자분류는 자력자강의 모토이고 국가과학원은 자력자강

국가과학원 당위원회에서 과학자분류에 걸세위인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심도있게 진행하고있다. 그들이 높은 과학연구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 조직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와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을 당의 강령으로 풀이하고 향기의 알보다 더없이 깊이 관철하여야 하며 모든 사업에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는데 지향시키고 북돋아주어야 합니다.》

지난 1월 어느날이었다.

밤은 소리가 없이 깊어졌지만 국가과학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상을 이윽도록 떠날수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

국가과학원 당위원회 책임일군이었다.

올해 정초 대소환의 추위로 마다하지 않고서도 국가과학원을 찾으신 우리 조국과학원 연구원들을 맞이하여 맞이할 준비를 마치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영도자동지께서 과학자분류는 자력자강의 모토이고 국가과학원은 자력자강

국가과학원 당위원회에서 과학자분류에 걸세위인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심도있게 진행하고있다. 그들이 높은 과학연구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 조직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와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을 당의 강령으로 풀이하고 향기의 알보다 더없이 깊이 관철하여야 하며 모든 사업에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는데 지향시키고 북돋아주어야 합니다.》

지난 1월 어느날이었다.

밤은 소리가 없이 깊어졌지만 국가과학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상을 이윽도록 떠날수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

국가과학원 당위원회 책임일군이었다.

올해 정초 대소환의 추위로 마다하지 않고서도 국가과학원을 찾으신 우리 조국과학원 연구원들을 맞이하여 맞이할 준비를 마치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영도자동지께서 과학자분류는 자력자강의 모토이고 국가과학원은 자력자강

국가과학원 당위원회에서 과학자분류에 걸세위인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심도있게 진행하고있다. 그들이 높은 과학연구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 조직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와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을 당의 강령으로 풀이하고 향기의 알보다 더없이 깊이 관철하여야 하며 모든 사업에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는데 지향시키고 북돋아주어야 합니다.》

지난 1월 어느날이었다.

밤은 소리가 없이 깊어졌지만 국가과학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상을 이윽도록 떠날수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

국가과학원 당위원회 책임일군이었다.

올해 정초 대소환의 추위로 마다하지 않고서도 국가과학원을 찾으신 우리 조국과학원 연구원들을 맞이하여 맞이할 준비를 마치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영도자동지께서 과학자분류는 자력자강의 모토이고 국가과학원은 자력자강

총동격전의 불길니름이 완공의 앞당겨 간다

결사관철의 기수, 전위투사가 되어

황해남도려단 일군들의 사업에서

황해남도려단 일군들과 동격대원들이 당의 새로운 전략적요건을 받들고 불길결전선에서 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이들은 지난 1.4분기 사회주의경쟁에서 우승의 영예를 떨친 그 기세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현수공격전을 벌이고있다.

일군들은 대외의 기수가 되어 결사관철의 앞장에서 내달리며 려단의 전위성과를 확대해나가기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사업가들과 일본새를 가지고 일해나가는 사람들이다.》

려단은 불길결전선에서 제일 큰 몫을 맡고있다. 하지만 다른 려단들에 비해 더 높은 실적을 올리고있다.

려단장은 려단이 이처럼 계속 앞장서나가기에 하는바람에 앞으로의 역할을 논하는 문제를 중시하시였다.

려단에는 다른데 비해 몇배 더 많은 경이 있으며 그만큼 실비율도 적지 않다. 사방에 분산되어있는 경들에서는 낮에 밤을 이어 굴지와 콩크리트벽공사가 벌어지고있었다. 여기에 맞게 공사에 대한 기술지도도 따라세워야 했

다. 특히 압축기와 같은 큰 실비율이 운영과정에 고장나면 당대원에서 자재로 고치기 곤란하므로 여기에 들어온 일군들이 항상 관심을 돌려야 하였다. 뜻밖의 정황이 수시로 제기되는 경들의 실정은 참모부에게 맞는 대책을 제때에 따라세워주도록 요구하고있었다. 이로부터 려단에서는 참모부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에 큰 힘을 넣게 되었다. 물론 참모부의 일군들에게도 계획작성으로부터 자재보장에 이르기까지 해야 할 일감이 많았다. 그러나 이들은 실패를 더 바라고 싶어하지 않았다. 당정책의 운명이 우리 어깨에 놓여있다고 말하면 외롭지 않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외치는 일군들이 많았다. 이리하여 참모부의 역할은 더욱 높아지고있었다. 이런 판점에서 경들을 맡아나선 일군들은 분신과열을 수행하는 길로 막장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굴지와 비록치리, 콩크리트지기전투가 벌어지는 곳들에서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정치사업을 책임적으로 맡아나선 일군들이 많았다. 시공을 담당한 일군들은 경들을 더 맡아 누구보다 많은 땀을 흘리었다. 밤이 깊어도 려단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동격대원들의 생활조건보장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

서 참모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것을 명심한 려단참모장은 일단 사업담당을 한 다음에는 수시로 경들을 돌며 일군들이 자기 위치에서 책임성을 높여도록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어내었다.

당의 뜻대로 직전방에 전두파지를 정하고 분별히 지키는 일군들의 일본새는 특히 실비율의 가용성을 높이는 데에도 발휘되었다. 려단에서 실비율의 정상가공을 보장하는 것은 전위성과를 높이기 위한 관건적고리였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전적으로 받아안고 현장에서 제때에 풀어나간 일군들의 헌신적인 일본새에 의해 려단은 대월 계속수행에서 언제나 다른 려단들의 앞장에 서게 되었다.

일군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승미에서 더 큰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시대의 전진속도를 따르려면 아직도 멀었다. 이런 자각으로 자신들에 대한 요구성을 부단히 높여왔다. 일군들은 전열을 창조하고 따라잡기 위해, 따라배우기 운동, 경협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리는데 힘을 넣었다.

대중운동의 생활력이 높아 발휘되도록 할 때 다발적이면 발달된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 이것을 확신한 일군들은

평안남도려단에서

려단정치부장은 일군들이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밀어붙여 독수리처럼 일군들이 일군들은 두 대상건설을 동시에 밀고나가기 위한 립체전을 총력해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할데 대한 당의 전위적요소에 화답해나선 이곳 일군들과 동격대원들은 지금 많은 대상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하기 위해 헌신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에서 대변된 기를 열어나가기 위하여서는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열정을 높여야 합니다.》

불이 불어와서 려단의 형세는 더 높아졌다. 이젠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쪽이 다 대적특성으로 하여 임자설치공사까지 있어주지 못하고 도중에 돌을 부러우야 하였다. 이것을 절충이나 맞불이로 공사를 다시 운반하여야 하였다. 이렇게 여러차례 겪어 돌을 운반하는 일이 결코 없었다. 그러나 어떤 열의와 난관도 동격대원들의 열의 투지를 꺾을수 없었다. 각 대대의 전위장들에서 백열전의 불꽃초가 활활했다. 백

굴진을 앞세우기 위한 혁신적인 방도

평안북도려단 일군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일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립장에서 맡은 사업을 혁명적으로 해나가기 바랍니다.》

불길결전선에서 평안북도려단은 지난 시기 불길결전선에서 맡아하다보니 굴진경험과 기술능, 실비율이 무척 높았다.

이 문제를 놓고 일군들이 고심하고있던 때 려단정치부장이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조전달발만 하는데서는 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난관이 벽까지면 그것을 뚫고나갈 묘술도 때까지로 찾을 줄 알아야 하며 또 반드시 찾아낼수 있다. 일군들은 신심을 가지고 분발해나섰다.

그들은 우선 당의 뜻대로 시공을 전진화하는것으로부터 방도를 찾아나섰다. 려단에는 여러개의 작업장이 있다. 매 작업장에서는 매개의 대대가 경전투에서 불길굴을 건설하도록 되어있었다. 일군들은 이 대대들중에서 한개 대대는 전적으로 책임과 그에 필요한 실비관리를 맡아하도록 하였다. 다른 대대들은 책임적업의 성과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 비록치리와

대대들도 책임감을 맡은 대대의 책임공들을 위해 온갖 성의를 다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감동된 책임공들은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더 깊이 자각하고 앞선 작업방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굴진의 속도를 부쩍 높여나갔다.

일군들은 불과파괴의 역할을 높이는 방도를 놓고 지고 있었다. 발파를 하는 방법에 따라 비력이 많이 나오거나 마가 하는것이 크게 파우더의 양을 줄여야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 때문에 발파공들을 위한 보어주기를 자주 조직하여 암질이 파르는 작한 발파방법에 대해 알려주면서 그들의 기능을 높여나갔다.

일군들이 자기 힘을 믿고 분발할 때 창조적 능수가 된다. 당정책의 운명이 우리 어깨에 놓여있다고 말하면 외롭지 않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외치는 일군들이 많았다. 이리하여 참모부의 역할은 더욱 높아지고있었다. 이런 판점에서 경들을 맡아나선 일군들은 분신과열을 수행하는 길로 막장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굴지와 비록치리, 콩크리트지기전투가 벌어지는 곳들에서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정치사업을 책임적으로 맡아나선 일군들이 많았다. 시공을 담당한 일군들은 경들을 더 맡아 누구보다 많은 땀을 흘리었다. 밤이 깊어도 려단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동격대원들의 생활조건보장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

더 빨리 내달리자

자강도려단 잠관공사장에서

려단정치부장은 일군들이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밀어붙여 독수리처럼 일군들이 일군들은 두 대상건설을 동시에 밀고나가기 위한 립체전을 총력해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할데 대한 당의 전위적요소에 화답해나선 이곳 일군들과 동격대원들은 지금 많은 대상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하기 위해 헌신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에서 대변된 기를 열어나가기 위하여서는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열정을 높여야 합니다.》

불이 불어와서 려단의 형세는 더 높아졌다. 이젠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쪽이 다 대적특성으로 하여 임자설치공사까지 있어주지 못하고 도중에 돌을 부러우야 하였다. 이것을 절충이나 맞불이로 공사를 다시 운반하여야 하였다. 이렇게 여러차례 겪어 돌을 운반하는 일이 결코 없었다. 그러나 어떤 열의와 난관도 동격대원들의 열의 투지를 꺾을수 없었다. 각 대대의 전위장들에서 백열전의 불꽃초가 활활했다. 백

실정에 맞는 공법을 받아들여

채취공업성려단에서

려단정치부장은 일군들이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밀어붙여 독수리처럼 일군들이 일군들은 두 대상건설을 동시에 밀고나가기 위한 립체전을 총력해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할데 대한 당의 전위적요소에 화답해나선 이곳 일군들과 동격대원들은 지금 많은 대상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하기 위해 헌신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에서 대변된 기를 열어나가기 위하여서는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열정을 높여야 합니다.》

불이 불어와서 려단의 형세는 더 높아졌다. 이젠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쪽이 다 대적특성으로 하여 임자설치공사까지 있어주지 못하고 도중에 돌을 부러우야 하였다. 이것을 절충이나 맞불이로 공사를 다시 운반하여야 하였다. 이렇게 여러차례 겪어 돌을 운반하는 일이 결코 없었다. 그러나 어떤 열의와 난관도 동격대원들의 열의 투지를 꺾을수 없었다. 각 대대의 전위장들에서 백열전의 불꽃초가 활활했다. 백

다시마생산 1.3배 증가

황해남도수산관리국산하 바다기양식사업소들에서 생산량이 늘어났다.

혁신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 전진회의 결정판에 펼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양식공들이 불리한 바다날씨에도 이렇듯하지 않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다시마생산실적은 1.3배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일군들은 양식장들에 나가 변화되는 일기조건과 바다날씨의 성장에 따르는 생육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이식작업의 일본새, 힘있는 투쟁으로 양식장들의 혁명적기세를 더욱 고조시키었다.

반려국적인 다시마생산에서 판리국적인 다시마생산에서 생산량을 담당하고있는 부모바다기양식사업소가 혁신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힘입어 이바지할 일임에 이곳 사업소에서는 지난해보다 양식장 면적을 더 늘리고 바다물온도와 해빙조건에 맞게 그 판리를 더욱 짜고들면서 다시마생육에 따르는 생육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이식작업의 일본새, 힘있는 투쟁으로 양식장들의 혁명적기세를 더욱 고조시키었다.

행복의 열매는 자기 손으로

은산군 안평농장 제3작업반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의 열매는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적극 발휘시키는데 있습니다.》

은산군 안평농장 제3작업반의 포전들은 높은 지대에 있고 대부분이 모래지갈밭인것으로 하여 농사조건이 농성적으로 높은 골짜기에서도 매우 불리하다.

그러나 작업반에서는 지난 10여년간 국가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였던 축적과 양에에도 힘을 넣어 작업반원들의 생활을 근조한 본보기가 될수 있게 추켜세웠다.

이러한 성과에는 지역생성, 지급지구의 구조를 높이고 불교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지하여 끊임없는 생산적양양과 비약적인 발전에 대한 당의 뜻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작업반원들의 생활에서 헌신하여온 장승호작업반장의 성실한 노력이 깃들여 있다.

작업반장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장승호동무의 생각은 길

행복의 열매는 자기 손으로

은산군 안평농장 제3작업반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의 열매는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적극 발휘시키는데 있습니다.》

은산군 안평농장 제3작업반의 포전들은 높은 지대에 있고 대부분이 모래지갈밭인것으로 하여 농사조건이 농성적으로 높은 골짜기에서도 매우 불리하다.

그러나 작업반에서는 지난 10여년간 국가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였던 축적과 양에에도 힘을 넣어 작업반원들의 생활에서 헌신하여온 장승호작업반장의 성실한 노력이 깃들여 있다.

작업반장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장승호동무의 생각은 길

행복의 열매는 자기 손으로

은산군 안평농장 제3작업반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의 열매는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적극 발휘시키는데 있습니다.》

은산군 안평농장 제3작업반의 포전들은 높은 지대에 있고 대부분이 모래지갈밭인것으로 하여 농사조건이 농성적으로 높은 골짜기에서도 매우 불리하다.

그러나 작업반에서는 지난 10여년간 국가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였던 축적과 양에에도 힘을 넣어 작업반원들의 생활에서 헌신하여온 장승호작업반장의 성실한 노력이 깃들여 있다.

작업반장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장승호동무의 생각은 길



당중앙위원회 4월전진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집중은 힘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본사기자 리 송성 특음



조선군 와인농장 제6작업반 2분조 선동원 박광애동무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선동원이다. 20여년전 선동원사업을 시작할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중앙위원회 4월전진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집중은 힘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그는 백두산건설위원들의 위대성사도들을 비롯한 수많은 선동원들을 갖추어놓고 다양한 선동원사업과 방법으로 농업근로자들을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벌이고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이 세기



조선군 와인농장 제6작업반 2분조 선동원 박광애동무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선동원이다. 20여년전 선동원사업을 시작할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중앙위원회 4월전진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집중은 힘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그는 백두산건설위원들의 위대성사도들을 비롯한 수많은 선동원들을 갖추어놓고 다양한 선동원사업과 방법으로 농업근로자들을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벌이고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이 세기



조선군 와인농장 제6작업반 2분조 선동원 박광애동무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선동원이다. 20여년전 선동원사업을 시작할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중앙위원회 4월전진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집중은 힘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그는 백두산건설위원들의 위대성사도들을 비롯한 수많은 선동원들을 갖추어놓고 다양한 선동원사업과 방법으로 농업근로자들을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벌이고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이 세기

강철로 당을 받든 전세대 로동계급의 결사의 투쟁기풍으로

강선의 노을은 오늘도 붉게 된다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강철 직장 로동계급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강철직장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보아주시 전기로라도 여러기가 된다.

1호초고전력전기로는 10년전 1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보아주시 로이다. 원산갈마해안평지구건설장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전구들을 보내줄 강철의 많은 땅이 바로 이로서 생선되고있다.

지난 4월 어느날, 1호초고전력전기로의 용해부동은 뜻밖의 과정에 부닥치게 되었다. 피열 로를 세워서 하는가, 일본일로를 다루던 그로 로를 세우는다는 한우일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잃는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선의 로동계급이 소리치며 힘차게 내달려야 할 로동계급의 발달을 이 때부터 시작되도록 간곡히 당부하시지 않았는가. 반장 용영희동무가 자리를 차고 일하였다.

로를 세우지 말고 매일 로열

간보수를 진행하자는 불같은 그의 호소가 무엇을 뜻하는것인지 용해공들이 어이 모르랴.

오랜 용해공들의 앞을 무작정 막아나서며 로안으로 제일먼저 뛰어들어가는 용영희동무는 비롯한 청년용해공들이었다. 한호한 전 검사장을 필히 모욕을 보수해나가는 그들의 미더운 모습은 그대로 전후 첫 출장을 위하여 로에 들어막힌 불발탄을 복속시키고 들어내던 전세대 용해공들의 영웅대모습 그대로였다.

그 시각 조력부대 대담비업반에서는 긴장한 해체작업이 진행되고있었다. 대담비업반은 이날에야 겨우 시작되었다. 그들이 임박처럼 위하는 이 말속에는 자기 직업에 대한 남다른 책임감과 열의가 있었다.

바로 이런 로동계급에게 영감을 높여나감에 따라 남비를 빠른 시간에 보강하기 위한 해체작업이 진행되던 그때 작업장을 돌아다니는 행태도 없었다. 근교대성원들도 다음교대성원들도 한일어려가 되어 즉조작역까지 함께 서나갔다. 전주에 《다우교대를 위하여!》, 《하나를 전세를 위하여!》, 전세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구호가 제일먼저 나불은 뜻도 다름

안고 그는 판신수를 만드는 기계제작에 달려들었다. 오래동안 로장을 배운 공용용해공 강철원 아이마도 힘을 합쳤다. 얼마전 그들이 심혈을 바쳐 만든 기계에서 쏟아져나온 첫 판신수는 강철직장로동계급에게 또 한번 새 힘을 주었다.

초병인 아들딸에 강선사람답게 당원구실을 다하고싶은것이 소원이었고, 마치막을간까지 일터에서 살겠다고 정성을 더하던 김승철동무의 이야기는 앞으로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지금 몇몇 로가 돌아가는가. 오늘 몇가지 했는가. 이것은 강철직장로동계급의 어느 가정에서나 예사롭게 유포는 말이다.

전기로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어야 기분이 좋아 마운면의 잠에 드는 강선사람들이다. 하루에 풀죽 한끼를 먹고도 되고도 다한 말 한마디 없었고 창문에서 거머를 치고 겨울을 내면서 도 제 집살림보다 나락정적부터 먼저 하며 6만 2천의 강철을 생산하여 강철로 우리 땅을 윤택하고 천리마대교조의 첫 봉화를 든 세대가 바로 그들의 부모들이었다.

강철직장 책임기사 지성호동무의 아버지는 강선에서 천리마 작업반운동에 참가한 용해공이었다.

이제 날 초고전력전기로의 로장으로 새로운 혁명적대교조의 일에서 달려온 책임기사 지성호동무는 비롯한 그의 형제들은 오늘 기업소의 불간을 이루고있다. 그들처럼 강선의 로동계급은 전세대들의 투쟁전투를 꽃이 이어가고있다.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력회의에서 제시된 전투적업무를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전선전군의 선두에서 영웅적 집합성-집행력로동계급의 본래를 보여줄 결사의 노을을 안고 용기있게 달려 뛰쳐나오기 위하여 강철로동계급의 열의는 드높고 강선에는 총천리마의 고향 강선은 어제도 오늘도 불변의 신념으로 세차게 끓어오르고있다.

강철직장 로동계급! 본시기자 조 창선

향해제철련합기업소 건설대보수사업소 설비조립직장에서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력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임하던 우리의 미더운 로동계급에서는 향해제철련합기업소 건설대보수사업소 설비조립직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당과 인민의 크나큰 믿음을 명심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장성강화되어온 주체혁명의 선봉부대, 나라의 팔아들 태극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영웅적인 사명감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향해는 사회주의건설의 1211고지를 지키는 전초기지라는 자각과 긍지를 가슴속에 안고 사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김일제 동무부터는 설비조립직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이다.

신소일련합기업소 설비조립직장, 무연탄에 대한 가스발생, 우리 식의 방한형생산공정 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임하던 주체화된 생산공정에서는 이곳 로동계급의 불같은 헌신과 애국적열정이 솟아올랐다.

본시기자 조 창선

로 주먹악을 울려다 먹으면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몇달은 걸려야 한하던 산소분리기의 분비담백관조립전투가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났을 때 황해사람들은 역시 전투력이 있다며 엄지손가락을 내보였다.

은 황철이 전투력있는 집단, 혁신자집단으로 자랑하는 설비조립직장 로동계급에서는 노력영웅 김광남동무도 있었다.

수십년전 중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황해로동계급이 된 그는 처음 직업을 풀이는 용해공이 되지 못한것을 아쉬워하였다. 꿈을 꾸어도 직장대를 넘어서지 못한 용해공영웅의 모습만큼 그대도 그런것이다.

그런 그가 남들의 눈에 크게 띄지 않는 프로그래밍을 처음으로 배우던 그때 오랜 로동계급이 배운 말이 있었다.

《사람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하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 일하는가가 더 중요한 법이다.》

김광남동무는 언제나 그 말을 잊지 않고있다. 그리고 신입공들이나 용직이 되지 못한사람도 직업반장 김철진동무와 신은철, 신규철, 최정철, 정정규동무들 비롯한 로동자들은 누구나 한치의 물러짐도 없었다.

공사기일을 앞당기려는 열망을 안고 이북 로동계급은 역마를 두면의 지상에서 확대포함하여 울리는 기합한 헌신과 애국적열정이 솟아올랐다.

유 광 진

뜻도 마음도 하나가 되어

합흥강철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뜻이 한데서 새겨진다.》

힘의 헌신을 마지치지 않는 초고강 일군의 이 말은 일군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일군들의 가슴속에는 확고한 신심이 굳게 자리잡았다. 언제나 땅의 뜻을 사색으로 받들어 온 공장의 미더운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이 있었었다.

합흥대구장과 금야강철조소를 비롯하여 도안의 기념비적성적물물마다에 숨어있는 자기들의 성실한 로동의 땅과 애국의 마음을 더없는 긍지로 간직하고 사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었다.

오랜 기간 공장에서 일하면서 로동자로부터 일군으로 성장한 지배인이나 기사장은 물론 갖가지 임직관 직은 로동자에서 이르기까지 강철로 당을 받들고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려는 지향은 한결같았다.

은 공장이 새형의 유도로제작 전투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생산을 중단없이 내밀면서 하는 일군은 전우였지만 모두가 두류, 세류의 일감을 맡아안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었다.

지배인 오현상동무는 자재를 채취하기 위해 땅이 깊도록 뛰어들었다. 당일군들은 힘있고 심금을 울리는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의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열

의를 한층 북돋아주었다.

안철, 석광일동무는 비롯한 기술자들은 피하는 사색과 탐구를 기세를 버리고 밤이 따로 없이 일터를 뛰었다.

어느날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전투에서 안철과 석광일은 한해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그를 이끌었다. 전기로에서 한참 쇠물을 뽑는 로동자들과 일손을 같이하고 나 그들은 실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 과정에 석광일동무는 문제해결의 신 비를 찾게 되었다.

그를 칭찬 눈으로 바라보던 기사장은 전기로현장을 개조하여 많은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게 된에도 로동자들의 성근한 방조가 있었기때문이라고 하면서 직장들에 설치된 많은 설비와 장치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진것이라고 의미심장하게 덧붙였다. 새 세대의 기술자인 석광일동무에게는 공장의 모든것이 새롭게 안겨주었다.

이렇듯 기술자들은 로동자들과 자주 무릎을 마주하고 서로의 마음과 뜻을 합쳐가며 도면 위에 신들을 하나하나 그어나갔다.

불꽃하는 전투의 날과 날이 흘러 보름도 안되는 짧은 기간

주체철생산의 앞장에 선 기수들

나라의 딸 아들답게

당의 믿음과 기대를 가슴마다에 깊이 새기고 주체철생산에서 혁신과 위훈을 창조해가고있는 김철제철련합기업소 용해공들속에는 신소일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작업반장 장흥우동무도 있었다.

지난 5월 초 작업반앞에는 로출신구체가공련투파제가 계기되었다. 20여시간이 걸려야 할 아찔한 전투파업이었다. 그러나 장흥우동무는 주제를 몰랐다. 그는 전투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었다.

당중앙위원회 4월전력회의 결

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김철이 소리치며 앞장서나가 한다는 신념이 전투현장에 나타났다. 서로 돕고 이르는 집단주의의 풍과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

보 단 의 한 길에서

정전제강소 최진로직장 로장인 한철호동무는 오랜 용해공이다. 그는 직장뿐아니라 온 제강소가 자랑하는 혁신자이다.

한생 쇠물을 끓여온 그는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력회의소식에 집하고 팔뚝을 얹었다. 조국의 강철기풍을 더욱 억세게 세우나가야 한다는 맹세가 그의 가슴속에 차올랐다.

올해 태양열을 맞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은총이 어린

철강재는 넘려라

김철제철련합기업소 1강철직장에는 30여년동안 제강조피공으로 일하는 작업반장 한철호동무가 있다.

지난 5월 초 직장앞에는 한철호 동지에게 보수를 해줄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약속이 있었다. 그는 작업반원들에게는 자기들이 내세운 시간대에 보수인수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했다.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을 위한 오늘의 비천한 투쟁에서 1분 1초도 헛되지 않수 없다. 결정적기후수리시간을 절감으로 앞당기자!

그의 불같은 호소와 이신자적

본시기자 리 남 호



급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필요한 대량설비생산을 다그친다. -정전제철련합기업소에서- 본시기자 김진명 찍음

중산의 비결은 과학기술을 앞세운데 있다

대흥단군감자가공공장 지배인 박국필동무의 사업에서

단군감자가공공장에서 만가동의 동음이 새겨져 울려나오고있다.

한때에 수만 1의 감자를 가공하여 감자장, 감자술, 감자시럽, 감자간장, 분말을 비롯한 갖가지 감자가공품을 다량생산하는 공장에서서는 해마다 년간계획을 수행하였다.

이 지향한 성과의 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배우면서 일하자

은 일하면서 며칠이 배워야겠다는 자각을 가지게 되고 낮은 점수를 받은 종업원들은 남한대려져서는 안되겠다는 승벽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 왜 지배인이 이런 시현제를 도입하였는가.

조영당시에 공장은 현대화된 감자가공설비들로 이루어져있었다.

셋기, 같이, 가공, 건조 등 복잡한 감자가공공정을 이루어지던 공장을 민간용으로 돌려지던 과학기술에 의지하여야 하였다.

기술자, 기술공정 분야에는 기술자, 기술공정이 되었다.

적지 않은 종업원들은 설비불가공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다루는데서 애를 먹고있었다. 기술자, 기술공정들을 전담성있게 꾸리는 사업을 놓칠뎠던 것으로 공장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를 하는것은 불보듯 뻔하였다. 이는 문제를 놓고 마칠수없는 생 각을 이끌어낸 박국필지배인의 공장일군들과 큰코를 겨누던 관에 자재의 힘으로 해결할 것

심을 하게 되었다.

그러하여 은 공장에 기술학습과 함께 과학기술의 기관차라는 열풍이 일었고 기술자, 기능공양성을 위한 사업들이 조직되었다. 평양기술공장을 비롯한 현대화수준이 높은 단위들에 찾아가 시야를 넓혔고 그 단위의 성과와 경험을 받아들여기 위해 고심하던 탐구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과정에 수십명의 기술자, 기능공들이 자라났으며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도 올랐다. 로동자들이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에 참여하여 대학을 졸업하여도 많은 종업원들이 원거리 육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고있

다. 이처럼 지배인은 종업원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기관차를 타고 달려가며 더 빠른 배로 뛰어들었다. 사람들이 흔히 이 공장 로동자들을 다른 단위에 보내던 작업반장이나 직장장은 능히 할수 있다고 말하곤 한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심지어 도안의 단위들에서 사업하고있는 지배인들중에는 대흥단군감자가공공장 출신들이 여러명이나 있다.

이것만 보아도 박국필지배인이 이 기술자, 기능공양성사업을 얼마나 목적이형성있고 일관하게 추진하고 내밀었는가를 짐작할수 있다.

발견하는 현실에 부단히 따라세워야 한다

대흥단군에서는 해마다 감자장보양 수요가 고 올라가면서 감자가공품도 상대적으로 늘어

다. 이렇듯 지배인은 종업원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기관차를 타고 달려가며 더 빠른 배로 뛰어들었다. 사람들이 흔히 이 공장 로동자들을 다른 단위에 보내던 작업반장이나 직장장은 능히 할수 있다고 말하곤 한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심지어 도안의 단위들에서 사업하고있는 지배인들중에는 대흥단군감자가공공장 출신들이 여러명이나 있다.

이것만 보아도 박국필지배인이 이 기술자, 기능공양성사업을 얼마나 목적이형성있고 일관하게 추진하고 내밀었는가를 짐작할수 있다.

박국필지배인은 대단하게 기능을 전무 없었음을 주장하였다. 그대신 계획적인 지혜와 힘을 합쳐 지분을 안전하게 만들수 있게 할리라는 시공방법을 찾아내었다. 지배인은 이공정사업을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유년권력회의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성과가 이룩된다는것을 이북 일군들의 사업경험은 뚜렷이 보여주었다.

따라달리기, 따라배우기운동

신의주시조물생 산협동조합에서

당중앙위원회 4월전력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신의주시조물생 산협동조합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세우는 투쟁을 벌여나가고있다.

이것 조합에서는 지난 2월말까지 생산년도 생산계획을 완전히 초과하여 생산물적전용 벌려 5월초까지 연간생산계획을 수행하는 자랑스러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망수행의 새번개 혁신을 앞세워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신념에 제시된 전투적업무를 높이 받들고 올해 정초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한 자리에 모여있었다.

관리위원장 차희숙동무는 지방자재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인민소비품을 생산할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년과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올해에 년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요 호소하시면서 구체적인 작전을 세우고 품이 크게 일군을 전개해나갔다.

일리마에서 전제에는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일군들은 지체없이 자금자재의 구호를 높이 들고 지난해에 마련해놓은 왕골과 강병이

본시기자 송 창 운

인민소비품생산에 계속 박차를

조합에서는 일별, 주별, 월별계획을 명백히 세우고 모든 종업원들이 매일 많은 생산계획을 이룩하여 수행하도록 생산조직을 짜고들었다.

따라달리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매일 생산계획을 2배이상 넘쳐 수행하는 혁신자집단이 날을 따라 늘어났다.

조합에서는 과학기술보급 실용성을 정상화하여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는 사업을 일관성있게 진행하면서 수십가지의 새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도 목적지향성있게 전개해나갔다.

이와 함께 혁신적인 경영전환, 기업정리관 세우고 기업정리관인민소비품생산위원회에 피수지로 여러가지 단점을 지적하여 국가에 리의를 주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이북 일군들은 후방사업은 표준적 사업이며 사회주의적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후방사업은 개선하여 종업원들의 생산열의를 높여주었다.

이북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요소를 높이 받들고 년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기세로 올해 중반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있다.

본시기자 송 창 운

